루이스 칸

- 20세기 현대 건축의 마지막 영웅 -

Erdman Hall의 후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01년 발틱해의 작은 섬 사라마에서 태어난 루이스 칸은 건축가들이 가장 존경하던 건축가였다. 네 살 때 필라델피아로 이민 온 그는 어려서 입은 상처로 얼굴에 흉터가 있는 작은 아이였으나 유태인 원리주의자답게 삶에 대한 열정에 가득찬 아이였고, 일에 몰두하고 진실에 헌신하는 종교적 소년이었다. 예일대학 건축학부의 크리틱과 교수로 일하던 1948년부터 1957년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필라델피아 월넛스트리트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와 펜실베이니아대학 건축학부 스튜디오에서 보냈다.

그의 진정한 친구는 학생들이었다. 그는 리뷰 세션 때 학생들의 작품을 옹호하고 다른 교수들이 모르던 그들의 가능성과 숨은 재능을 찾아내었다. 그는 항상 모임과 파티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진정으로 삶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작업에 있어서도 그는 모든 건축적 도전에 흥미를 가졌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나 상업적이고 떠들썩한 일에는 조심스러워 했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큰 대접을 받았으나 역설적으로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계속된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일로 그의 사무실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다.

건축을 통하여 칸은 인간의 가치를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세 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며 어려서 수많은 미술상을 받았다. 1924년 펜실베이니아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건축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유럽 여행을 하였고, 돌아와서는 여러 건축가들의 사무실을 거친 후 필라델피아 주택공사에서 일하였다. 대공황기에는 ‘그린벨트 타운’에 몰두하고 1946년부터 1954년까지는 크릭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거의 삼십 년을 그가 말하던 ‘말없는’ 작업을 하며 지낸 것이다.

1950년대 루이스 칸은 특이한 건축적 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다. 건축에서의 ‘서번트와 서브드 스페이스’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건축 공간이 기능적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위계 질서를 가진 공간 복합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감각적 요소라고 설파했다. 그러나, 발군의 미술적 재능과 독특한 철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뛰어난 설득력을 갖고 있었으며 예일대학, 펜실베이니아대학 등 당대 최고 학부의 교수로 있었으면서도

Richards Medical Research 빌딩.

동쪽에서 보이는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좌)와 Kimbell Art Museum의 갤러리(우).

루이스 칸은 그러나 오십 중반이 될 때까지 이렇다할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 라이트, 꼬르뷔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로피우스와 미이스 등은 모두 삼십대에 이미 세계에 이름이 알려졌고 매킨토시 같은 경우 사십 이전에 건축계를 떠났으면서도 역사에 큰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루이스 칸은 오십 중반까지 평범한 교수·건축가였다. 그를 일거에 세계적인 건축가로 알려지게 한 예일아트갤러리와 리처드메디컬센터가 세워진 것은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인 오십을 넘긴 이후이고, 킴벨아트뮤지움과 뮤지움 오브 브리티시아트 등은 환갑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의 철학적 사고는 독특하였으나 철학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의 건축론은 사물의 핵심에는 닿아 있으나 자기류이고, 그의 도시 계획안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관념의 세계에 머물렀으나 그가 만든 작품들은 20세기 건축의 가장 위대한 성과들이다.

무엇이 열정적이었으나 평범한 건축과 교수였던 그를 20세기 최고의 건축을 만든 작가가 되게 하였을까. 오십 년 넘게 잠복하였던 그의 천재를 분출케 하였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한 번도 "이제 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한다.

Yale center-enterance court.

그가 메디슨 스테이션에서 의문사하기 전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일했던 구니오 구도 교수는 그를 '그레이트 크레이지 가이'라고 불렀다. 그는 오십이 넘어서 제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다. 뛰어난 건축가이기보다 존경스러운 건축학 교수였던 루이스 칸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 건축적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 세계 건축계를 놀라게 한 예일아트갤러리, 리처드메디컬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그가 대기만성의 천재였으며 그의 미술적 재능과 철학적 예지가 공간 예술 형식으로 나타나는 데 삼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기도 하였겠으나 제자와의 사랑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번 불길이 닿은 그의 천재성은 더 깊고 높은 곳으로 계속 불타 올랐다. 킴벨아트뮤지움, 소크인스티튜트 등 연이어 발표된 작품들은 전 세계 건축계를 열광케 하였다. 그는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건축이 풍미하던 현대 건축에 서양 건축사의 본류인 보자르의 전통과 현대 건축의 정신을 하나로 한 고전적 모더니즘의 세계를 건축 공간으로 구현하였다. 그의 건축은 현대 건축에 역사와 현재의 통합, 지적 세계와 예술 세계의 대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TS 엘리어트가 문학 세계에서 이루었던 것을 그는 건축 세계에서 이루었다. 그는 같은 시대의 건축가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건축가로서 삼십 년 동안 침묵하던 사화산으로부터 용암이 분출하듯 연이은 걸작들을 발표하였다. 그의 유작인 다카의 국회의사당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 같은 장엄한 서사시적 건축이었으며 베네치아 컨퍼런스 홀은 미완의 대작이었다. 그는 20세기 후반 현대 건축을 역사의 흐름에 닿게 한 현대 건축의 마지막 영웅이었다.

김석철 (건축가, 베네치아대학·콜럼비아대학 초빙 교수)